



흉부외과의 개척자, 고병간(高秉幹)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폐결핵을 수술로 고치려는 그의 집념과 도전정신은 전신마취기도 없는 열악한 조건 하에서 마침내 한국 최초의 폐절제수술을 성공시킨다. 매사에 진지하고 학업과 연구에도 두각을 나타낸 그는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압력에도 결코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 불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학 총장으로서도 업적이 크지만 그는 역시 우리 나라 흉부외과를 개척한 선구자로서의 발자취가 더욱 빛난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화학요법의 발달로 결핵의 내과적 치료가 가능해지기 이전에는 흉곽성형술이나 폐절제수술은 한 때 결핵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다. 병집이 있는 폐를 압축하여 병집의 치유를 돕거나 아예 병집이 있는 폐를 잘라내는 폐수술은 위험도 따랐지만 치료기간을 훨씬 단축하고 근원적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흉부외과의 역사를 논할 때 그 선두에는 단연 고병간이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우리 나라 흉부외과를 개척한 선구자임에 틀림없다. 고병간은 1899년 1월 24일 부친 고승헌과 모친 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평북 의주가 고향이다.

1915년 의주의 미션계인 신영소학교를

졸업한 그는 선천에 있는 신성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어릴적부터 말 수가 적고 학령기를 넘겨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급우들 보다 국가에 대한 관념이나 일본에 대한 중요심이 강했다. 그리고 진실한 성격으로 스스로 공부에 열중하여 성적은 늘 남보다 앞섰다. 또한 학교가 미션계통이었으므로 기독교 교리에도 충실하여 선교사들의 신임이 두터웠다.

일본의 강점으로 반일감정과 망국의 서러움이 팽배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성장한 고병간은 20세가 되는 해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중학생의 몸으로 3.1운동에 앞장 섰다. 불의에 굴할 줄 몰랐던 그는 마침내 일본 관헌에 체포되어 신의주경찰서에 구금되지만 계속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한 죄로 평양형무소에서 1년 반의 옥고를 치루어야 했다.

1920년 가을 형기를 마치고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한 그는 신성중학교 선생과 선교사들의 특별한 배려로 5학년이 복학하여 그 다음 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1년 3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학업과 연구에도 두각

그는 세브란스 의전 재학 중에도 신앙 생활은 물론 교우관계나 학업에 있어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냈으며 교수들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었다.

1926년 26세 때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그는 학교에 남아 외과교실의 러들리교수 밑에서 일반외과를 전공했다. 러들리는 미국의 외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유능한 의사로서 의학연구와 선교에만 전념하는 인격자였다. 러들리교수 밑에서 2년간 수련을 마친 고병간은 1927년 8월 함경남도 함흥(咸興)에 있는 기독교계의 제혜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했다.

제혜병원은 1908년 11월 6일 캐나다의 선교 여의사 맥미란(Kate MacMillan)이 좁은 한옥에서 환자진료를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며 1923년 10월 맥미란이 병사한 후 제2대 원장으로 부임한 역시 캐나다 선교여의사인 머레이(Florence Jessie Murray)는 결핵환자가 몰려들자 1927년

전염병동을 아예 결핵병동으로 전원하여 본격적으로 결핵환자를 치료하였다.

고병간은 흉부외과를 전공하기 위하여 일본 경도제대 의학부로 떠날 때까지 8년간 제혜병원에 근무했다.

머레이의 회고록에 의하면 머레이는 폐의 공동(空洞)이 없어지지 않는 청년에게 최초로 흉곽성형술을 시술했는데 수년 후에도 그 청년은 살아 있었고 일도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머레이가 내과의사인 것을 생각하면 이 수술에는 외과과장인 고병간이 참여했으리라 믿어진다.

흉부외과를 전공하기 위하여

고병간은 1934년 5월 일본으로 건너가 경도제국대학 의학부의 흉부외과교실에서 폐결핵의 외과적 요법에 대하여 연구에 몰두했다. 그 당시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결핵이 만연하여 중대한 국가적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공장이나 탄광 등의 저소득 노동자들 중에서 결핵이 속출하였다. 그 여파로 일본 각지의 공장 등에 고용되어 있던 우리 나라 부녀자나 노동자중 많은 사람들이 그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결핵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청정한 시골 농촌에 결핵을 마구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참상은 이미 제혜병원 근무시절부터 익히 알고 있는 그였다.

1937년 4월에는 오궁선(吳兢善)교장의 권고로 모교 세브란스 의전의 외과교수

로 취임했는데 자기가 희구하던 흉부외과의 개척과 후진 양성을 위하여 교단에 서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외과교실에서 흉부외과를 새로 만들려는 그의 의도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이에 따른 물자 부족 등의 긴축정책이 교실에까지 파급되어 난관에 부딪혔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일본간에 전운이 감돌고 교수로 와 있던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자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경도대학에 유학했을 때의 연구결과로 1940년 동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5년 8.15광복 후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했으며 군정청 보건후생부에 있던 이용설(李容濤)의 천거로 고병간은 광복 후 일본인 교수들이 본국으로 철수해서 공백상태에 놓여 있던 대구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발탁되었는데 그는 흉부외과를 소신껏 키워 보겠다는 결심으로 이를 기꺼이 수락했다. 1945년 9월에 교장으로 취임한 후 한 달 만에 대구의전은 대구의과대학으로 정착 공격했다.

1946년 10월 1일 좌익에 의한 대구 폭동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있었으나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잘 대응하였다.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교육과 진료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는 그를 경원시 하던 사람들까지도 결국 그에게 고개 숙여 내심 존경심을 갖게 했는데

이는 항상 정도를 가려는 그의 진지한 성격에서 비롯된 소치였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면 그 소신을 결코 굽힐 줄 몰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불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학장으로 있으면서도 흉부외과에 대한 관심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의대부속병원 뿐만 아니라 국립마산요양원과 마산교통요양원과도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폐결핵환자의 외과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한국 최초의 폐절제술

즉 1948년 10월 6일 고병간은 국립마산요양원 문창모(文昌模)원장의 요청으로 직접 그곳으로 출장가서 세브란스의대 외과에서 파견된 유승화(劉承華)교수를 조수로 광복후 최초의 흉곽성형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1949년 5월 5일에는 한국 최초의 전폐적출술이 고병간 집도로 대구의과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도 없는 열악한 조건하에 국소마취로 실시되었으며 유승화가 수술을 도왔다. 국립마산요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수술 후 다시 요양원으로 복귀했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 후 마산에 있는 국립요양원과 교통요양원에 출장가서 30례 이상 수술을 시행했는데 환자의 예후가 좋아 그는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최대의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1956년초 중구 회현동 소재 대한결핵협회 현관 앞에서 오른쪽부터 윤석우(尹錫宇) 사업부장, 고병간(高秉幹) 회장(백발), 이재규(李在珪) 부회장, 김남규(金南奎) 학술부장, 한응수(韓應朱) 총무부장

그 때 그의 지도를 받으며 수술에 참여했던 세브란스 의대의 유승화, 국립마산요양원의 이완영(李玩永), 대구의과대학의 이성행(李聖行)은 그의 대를 이어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기초를 닦는데 공헌했다.

1951년 9월 고병간은 문교부 차관으로 발탁되어 1년 2개월간 문교행정을 돌보다가 1952년 9월에는 종합국립대학교로 재출발한 경북대학교의 초대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의과대학장까지 겸직을 했는데 방대한 종합대학교 발전계획을 그 특유의 고집과 추진력으로 밀고 나갔다.

1955년 12월에는 전체 회원의 추대로 대한결핵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경북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중요한 행사와 회의 때에는 꼭 참석했으며 실무적인 사항은 이재규(李在珪) 부회장이 맡아 위임하였다.

1959년 4월 경북대학교 제2대 총장에 연임되었으나 이듬해 4.19로 사임하고 그 해 9월 모교인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다음 해 9월까지 재직했다. 그는 총장 사임 후 세브란스병원장으로 가서 병원 발전에 헌신했고 1964년 5월에는 숭실대학 요청으로 그 대학 학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 행정과 운영의 경험을 살려 종합대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66년 12월 9일 문교부에서 개최된 진국대학총학장회의 석상에서 뇌일혈로 졸도하여 곧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후인 11일 낮 영면했다.

향년 67세, 중학교 2학년 때 결혼한 공은일(孔銀一) 여사와의 사이에 1남 4녀를 두었다.